

올해는 '광프리카' 없는 여름 되나

〈광주 + 아프리카〉

지난해 광주 폭염 43일 '최악' 올해는 6월 폭염 특보 없어 비 자주 내려 열기 식히고 남쪽 덥고 습한 공기층 기 못 퍼 광주·전남 오늘 첫 장맛비

올 여름 '광프리카' 더위는 건달 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낮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러웠던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여름에 비해 평균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2도 가량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별 탈 없는 여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낸 시민들은 올초부터 냉방기를 구입하는 등 여름 폭염에 대비했지만 최근 들어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날이 잦을 뿐 아니라 6월 들어 폭염 특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아 다소 의아해하는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 여름엔 대기 중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고, 비 오는 날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때문에 지난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온 김병석(38·회사원·광주시 동구)씨는 광주가 대구보다 덥다는 직장동료의 말에 지난해 초 부랴부랴 에어컨을 구매했지만 아직까지 사용해본 적 없다. 김씨는 "6월 막바지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까지 해 선풍기도 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폭염일수는 43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광주는 '광프리카'로 불렸다. 광주는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는데 올 들어선 전국에서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6월15일)가 발효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6월 들어선 날씨가 예상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광주 평균기온은 21.7도로 지난해 6월 23.6도보다 1.9도가 낮다. 낮 최고기온도 31.7도에 그쳐, 지난 2017년 6월 낮 최고기온인 34.5도와 비교하면 2.8도나 낮은 수준이다. 1981~2010년 30년간 평균기온을 뜻하는 평년 기온 22.9도보다도 1.2도가 더 낮다.



"분수가 최고"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25일, 담양 죽녹원 앞 분수대에서 한 아이가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월 폭염 일수 또한 2017년과 2018년 각각 5일과 2일이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하루도 없어 '광프리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6월 한달 동안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일수도 지난해는 15일 이었

제2 윤창호법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6면
한국영화 100년 - 미워도 다시 한번 ▶18면
광주FC,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 ▶20면

지만 올해(24일 기준)는 4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6월 광주 더위가 '다행스럽게' 예년에 못 미치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층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6월은 북동쪽에 위치한 배랑해 부근 상층(약 5km 상공)에 기압능이 발달해, 우리나라 부근에는 상층 기압골이 위치했다"며 "이로 인해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평년보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한낮 열기를 식혀주고 있는 것도 폭염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런 날씨 추세를 한여름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더위 대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7, 8월에 평년 수준 이상의 폭염이 찾아올 수도 있

고흥 프로레슬링 홍보관 건립 '퇴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6개 사업 재검토 처분

순천만 국가정원에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고흥에 프로레슬링 홍보관과 힐링해수탕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퇴짜'를 맞았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 적정성 분석을 거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다만, 전남 511호 병원 선을 대체할 신형 선박을 건조하거나 목포 '해변 맛길 30리' 사업 등은 '조건부'로 추진토록 해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50개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 6개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이 미흡하며 보완해 재상정토록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우선, 순천시가 상정한 '순천만 국가정원 실내정원 조성' 사업의 경우 135억(국비 65억·시비 70억)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미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오는 2021년까지 4500㎡부지에 세계도시정원, 참여작가 정원 등 실내온실과 정원테리아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연계성이 미흡, 실내정원 조성 취지가 어울리지 않는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순천시가 내년도 개최기로 계획중인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총사업비 29억원)도 개·폐회식 비용(3억원) 조정 등으로 재검토 처분이 내려졌다. 고흥군이 상정한 '금산면 프로레슬링 홍보관'과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등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경제적 수익성 등이 결여된 만큼 재검토한 뒤 상정토록 했다. 프로레슬링 홍보관은 국비 등 26억을 투입, 지상 2층(연면적 800㎡) 규모로 건립하고 주변에 동상 5개를 세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 수영장·해수탕·찜질방 등을 조성하는 실내수영장·힐링해수탕 사업은 이용객 현황을 파악해 수익성을 분석한 뒤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먼저라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또 영광군의 '월출산 종전 100 힐링파크 조성사업'(총사업비 130억)과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총사업비 90억)도 각각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발굴조사를 마무리한 뒤 재상정토록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외 목포 평화광장·해양대 구간에 130억 원을 투입, 해변데크, 광장 등을 조성하는 '해변맛길 30리 조성' 사업, 광양 백운산에 산림복지단지(181억)와 산림박물관(73억)을 짓는 사업, 전남 511호 대체 선박(260t 급) 건조 계획, 통일센터 건립사업(80억), 나주 혁신도시 일대 바람길숲(80ha) 조성(183억),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198억), 신안 하의도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150억) 등 44건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내거나 조건을 달아 추진토록 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과거 부실수사·인권침해 정치적 사건 중립성 어겨

퇴임을 앞두고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행사를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도 받아들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가 지적한 개별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과 방식과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2017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 상 최초 수상!

Costa CRUISE ITALIAN STYLE
*1만 4천톤 *전장: 290m *전폭: 35m
*승무원: 3,780명 *승무원: 1,100명

오늘은 유럽, 내일은 아시아
매일매일 새로운 4개국의 아침을 만나보세요

한/중/일/러 4개국의 아침을 깨우다

무료 셔틀버스 제공!
광주·인천/속초/부산 왕복수송

10/8 인천항·상해·나가사키
▶ 블라디보스톡·속초항

한/중/일/러 특별 전세선 8일
내 측 1,980,000원 ~ 발코니 2,680,000원 ~
오선부 2,280,000원 ~ 스위트 3,480,000원 ~

10/15 속초항·블라디보스톡
▶ 사카미나토·부산항

한/러/일 특별 전세선 6일
내 측 1,780,000원 ~ 발코니 2,480,000원 ~
오선부 2,080,000원 ~ 스위트 3,280,000원 ~

조기예약 이벤트

30만원 할인 + 선실 우선배정
[7월 19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 예약 최대 10만원 추가할인
8명 이상 3인실, 14명 이상 5인실, 20명 이상 10인실 할인

3/4인실 할인
3/4인실 이용시 3/4인실 고액 상품가

2018 인기크루즈 BEST 3

선박수 20만원 할인 **한/일 크루즈** 5/6일
1,090,000원부터 [4US77.5 선실관광 포함]
▶7/3,8,12,26~ 매주 월·수,금요일 출발
▶새롭게 등장한 코스타 네오만티카호 탑승 ●부산 출/도착

베스텔리 알래스카 정통 빙하크루즈 6/10일
3,700,800원부터 [4US201.5 선실관광 포함]
6/7, 14 이후 매일출항. 매주 금요일 출발
●루비 프린세스호 ●프리미엄 크루즈 승선 및 알래스카산 선상식

조기예약 최대 30만원할인 지중해 크루즈 10/11일
2,990,000원부터 [470/180유로 선실관광 포함]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6/21~ 매주 금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탈리아) ▶6/28~ 매주 금 출발
●유럽 NO.1 코스타 크루즈 탑승, 밀라노 추가 관광 + 임금호텔 숙박

1명차 특별공연 / 가수 김성환, 전영록

2명차 특별공연 / 가수 홍서범 & 조갑경

상해 나가사키 블라디보스톡 사카미나토

가견보유권 크루즈 선실로 및 항공료, 식료품 등 필수 경비 포함 가이드/가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보단계] ●여행유리 ●여행자재 ●여행수권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여행객이 입국에 고비용 전염병 예방 가능함. ●종로구청: 일일여행금 제47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0 롯데관광(광주)) ●일일여행금 영리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0만원 가입 ●여행보험처리센터: 1589-8832 ●여행출발지: 부산항/속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21일 사무실/부속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상에서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국권, 숙박권 등은 여행객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